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46. 다섯째 나팔(2)

2013. 11. 17.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섯째 나팔에 대한 말씀 일부를 공부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이후에 대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9:6~12]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7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8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9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10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11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12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다섯째 나팔에 대한 기록의 절반쯤 공부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부분을 공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답: 그렇습니다. 계시록의 예언 중에 나팔에 대한 예언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청자들이 라디오를 통하여 들을 때에 너무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무쪼록 귀 기울여 들으시고 잘 이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6절 말씀을 살필 시간인데요,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는 말씀입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전갈의 권세를 받은 황충이 괴롭게 하는 기간을 뜻하겠지요.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사건을 뜻하는 것인가? 영적인 것을 뜻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됩니다. 이슬람 군사들이 공격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한다고 했으니 죽은 사람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자그마치 다섯 달 곧 150년입니다.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생존하는 사람도 없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육체적인 죽음을 뜻하는 표현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다른 뜻이 있지요. 결국 영적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이라면 이것은 이슬람의 핍박으로 그들이 믿는 것을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태에 들어갔다는 뜻이 됩니다. 어쩌면 로마교나 정교도들이 이슬람의 핍박으로 그들이 속한 데를 떠나고자 했지만 떠날 수도 없게 된 어떤 사정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그렇지요. 거기 속해 있으니 전갈이 쏘는 것 같이 괴롭고, 그래서 떠나려고 하니까 떠날 처지가 못 되는 그런 사실을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고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한 사정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기록된 사실에 의하여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2. 그런 설명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군요. 당시에는 로마교나 정교나 무신자들이나 다 같이 이슬람 군사들이 공격 대상이었으니까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사정이 비일비재했을 것 같습니다. 이슬람에 개종하면 아마도 괜찮았을 것인데, 그렇게 쉽게 개종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네요?

답: 그런 자세한 사정을 우리가 알 수 없지요. 이슬람들은 코란을 받든지 칼을 받든지 하라고 했다는데 사실이 그랬는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요.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과장이나 각색된 것이 많을 것이니까요. 소문을 들은 내용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전혀 사실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언젠가 신문에 이슬람에 대하여 쓴 글을 읽었는데, 그런 것은 와전된 것이라고 썼습니다.

3. 예, 목사님,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교회에 대한 것도 많은 것이 와전되어서 마치 정말 재림교회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심지어 우리교회를 비판하는 글들을 읽어볼 때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냥 쓴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다 와전된 소문, 특히 좀 악의적으로 퍼뜨린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을 보았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것도 그런 경우가 많겠지요. 아무튼 목사님 이제 다음 말씀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답: 다음 구절을 읽어봅시다.

[계9:7~10]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8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9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10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것은 황충들의 모양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슬람 군사들의 행장에 대한 묘사이지요. 왜냐하면 황충이 이슬람 군사들을 상징하는 것이니까요. 요한이 계시 중에 그들의 진격과 전투를 보았을 때 여기 묘사한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슬람 군사들은 기병이 중심이었지요. 수천 명의 기병이 먼지를 일으키며 돌진하는 모습은 마치 황충이 하늘을 덮고 농작물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노란색 터번을 썼습니다. 그것이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장발이었거든요. 당연히 여인의 머리털 같았지요. 여기까지 묘사가 병사들의 모습이라면 다음 표현들은 그들이 행동하는 모습에 대한 묘사입니다. 사자의 이 같은 이를 가졌다는 것은 그들이 승승장구하면서 무섭게 공격하는 상태에 대한 표현이고, 철흉갑은 가슴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는 방어용 무장이지요. 그들이 강한 방어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날개소리에 대한 말인데, 황충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날개소리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요. 그 소리가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말들의 소리 같다는 것은 병거와 말들의 신속한 기동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런 묘사는 사실 이슬람의 군사행동을 세

밀하게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갈과 같은 꼬리로 쏜다는 것은 이미 설명했습니다. 다섯 달, 곧 150년간 이슬람에 정교나 로마교의 영토에서 그들을 괴롭힌 사실은 기록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 종교가 국가를 지배하면 지배하는 종교 외의 종교들은 괴롭힘을 받습니다. 일제 때 한국은 신사참배 문제로 기독교가 무척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정말 전갈의 쏘는 것과 같은 괴롭힘을 당했지요.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하는 경우였습니다. 즉, 예수 믿는 것을 떠날 수 없고, 신사참배 할 수도 없고 그 형편이 이슬람이 소위 기독교 국가를 지배하던 시대의 형편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3. 일제 때 한국 교회의 사정이 이 말씀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 황충을 주장하는 임금이 있다고 했네요?

답: 예, 사실 성경은 메뚜기는 임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황충은 메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임금이 없는데, 여기 임금이 있다고 한 것은 황충으로 표현된 것이 실제의 황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메뚜기는 임금이 없다는 성경구절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잠언 30:27에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하시겠어요?

[잠30:27] 임금이 없으니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경구절을 제시하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 묘사된 황충은 임금이 있는데, 무저갱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계9:11]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이 우리들의 임금은 그 이름이 아바돈, 또는 아볼루온입니다. 지금까지 황충의 정체가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았지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열었으니까 대강 그 정체를 짐작했는데, 여기서 그 정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이름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 황충의 정체성을 더 잘 알 수 있겠지요. 기록한대로 황충이 무저갱의 문을 열었을 때 거기서 나온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임금은 무저갱의 사자입니다. 이 사자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미 본대로 무저갱은 글자의 뜻대로는 밑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이지만 성경의 용례를 따라 죽은 자의 땅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 죽은 자의 땅의 임금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입니다. 아바돈은 파괴,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아볼루온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미 1절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루시퍼 사단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충의 무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군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변질된 기독교를 정치하기 위하여 사단이 사단의 조직을 공격하는 희한한 심판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루시퍼가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나타냈기 때문에 무저갱의 사자로 나타난 자기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자기를 공격할 때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것이 진짜인줄 알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하고 괴롭혔지만 그것이 다섯째 나팔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루시퍼가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의 허락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4.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좀 길었고, 또 산만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한 번 정리해주시는 것도 애청자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 그렇게 해 봅시다. 그런데 정리한다고 하면서 또 복잡해지면 어떻게 하지요. 다섯째 나팔은 루시퍼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 문을 열고 무저갱에서 황충처럼 보이는 무리들을 불러냅니다. 그들은 바로 그 시대, 즉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성경의 사상과 진리에 많은 오류들을 섞은 변질된 교회들과 그 신앙을 가진 나라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교회 안에서 자기의 입지를 세운 루시퍼가 이제는 무저갱의 사자가 되어서 그런 교회들을 공격하므로 교회 안에 세운 자기의 입지가 진짜라는 것을 증거하려고한 사건을 상징적 언어로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인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5. 목사님, 정말 간단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 말고 다른 설명들도 있겠지요?

답: 당연히 많이 있지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만 저는 맥스웰 교수의 해석을 지지합니다. 그의 해석과 제가 이해하는 것이 조화되기 때문에 그분의 해석과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다른 학자들은 이것을 실제적인 전쟁이나 이슬람 세력의 등장으로 보지 않고 사상적으로 일어날 것을 가르쳐준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여러 번 말했는데, 관념철학의 도입이라든가, 허무주의의 팽창, 교회가 무기력하게 되는 상태 등으로 설명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설명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계시록이 그런 사상의 혼란을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해하는대로 4각 기둥의 네 면같이 하나님의 복음 사업의 진행을 교회의 역사적 진행을 중심으로 하여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진행에 대한 계시인 것이 확실하다면 나팔 사건들도 그런 시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6. 예, 목사님, 저도 목사님 설명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차제에 이슬람에 대하여 간단하게나마 설명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답: 그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슬람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라도 하도록 하지요. 현재 어떤 통계에 의하면 이슬람 신도들은 12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기독교 다음으로 큰 종교집단입니다. 듣는 대로는 무슬림이라는 말은 알라신에게 완전히 굴복한 교도들을 뜻하는 말이고 모슬렘은 이슬람교도들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는군요. 이슬람의 창시자는 모하메드이지요. 또는 마호메트라고도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스마엘의 혈통이라고 합니다. 그는 알라신을 유일신으로 믿고 구약성경 중에 모세오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예언자들, 구약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들을 다 그들의 예언자로 인정합니다. 아벨도 예언자라고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의 예언자로 보고 마호메트를 대 예언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로 여기지 않고 동정녀 탄생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근본 신조는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마호메트는 하나님(알라)의 예언자이다 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출발한 종교입니다. 알라는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구약의 하나님 엘로힘을

아라비아 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창시자 마호메트가 죽은 후에 마호메트가 제정한 규칙들을 모아서 책을 만든 것이 코란입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이지요. 이 사람들은 경전인 책을 엄청 존경합니다. 코란을 함부로 취급하면 불경죄가 되고 사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 같더군요. 아프가니스탄입니까 어디서 미군들이 버린 책들을 모아 불태우다가 코란을 태운 것이 알려졌을 때 엄청 난리를 쳤지요. 마호메트의 후계자들이 칼리프(이슬람의 교황 격이지요.)에 올라 아랍인들을 규합하여 연합군을 이루고 알라신의 이름을 군사행동을 감행한 것입니다. 언젠가 이스라엘 관광을 갔는데, 바위사원에 들렀습니다. 한 가운데 큰 바위가 있더군요. 안내자에게 그 바위가 무슨 바위냐고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한 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고 하니까 그가 웃으면서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친 것이며 원래는 이스마엘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만아들을 드리라고 한 것이 알라의 요구였다고 하더군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그들이 모세오경을 믿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자기들의 선지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에 연가 같은 일을 한 것이 됩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오해하게 했으니까요. 대강 이정도로 끝내지요.

7. 예, 그정도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구절로 넘어가지요.

답: 그렇게 합시다. 다음 구절을 읽어볼까요.

[계9:12]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첫째 화가 지났다고 하는 것은 8:13에 독수리가 공중에 날면서 외친 화화화의 그 첫째 화가 지났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섯째 나팔의 내용이지요. 그것은 이슬람 세력이 비잔틴 제국을 괴롭힌 1299년부터 1449년까지의 사건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셋째 넷째 나팔에 해당하는 시기보다 먼저 있었던 사건으로 보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넷째 나팔은 두아디라 시대부터 개혁시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사건이었거든요. 두아디라 시대는 538년부터 1798년까지이기 때문에 셋째 넷째 다섯째 나팔, 아마도 여섯째 나팔의 기간에 걸친 긴 기간이 됩니다. 자그마치 1260년이니까요. 1260년이라는 기간 중에 150년이라는 기간은 긴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일어나는 또 다른 사건들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 긴 기간 안에 그냥 정교연합체가 세상을 통치한 사실을 예언한 것이고 나팔은 그런 기간 안에 또 역사적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계시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에 두아디라 시대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라야 된다는 주장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대가 셋째 넷째 나팔 다음에 와야 한다는 생각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나팔 사건들이 다 그 긴 기간 안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8. 왜 하나님께서는 다섯째와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특별히 화화화라고 선포하셨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답: 정확한 이유를 모르지만 아마도 그 화의 내용이 앞에 네 나팔보다 극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된 내용도 앞의 네 나팔보다 엄청 길게 기록되었지요. 일곱째 나팔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이고요. 앞의 네 나팔보다 포괄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이 멸망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영광중

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뿐이지요. 그리고 이 지구가 엄청난 파멸에 직면하게 되지 않습니다. 첫째 화, 둘째 화가 셋째 화만큼은 아니지만 그 파괴력이 앞에 네 나팔의 파괴력보다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9. 그런데 다섯째 나팔이 첫째 화인데, 그 피해가 그렇게 컸나요?

답: 어떤 기록에 의하면 150년 동안 13만여 명의 배교자를 처형하고 500만여 명을 살상하였다고 합니다. 그만하면 엄청 큰 피해가 아닙니까. 예루살렘 멸망할 때 100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첫째 나팔이잖아요. 그리고 서로마가 망할 때에는 얼마나 큰 살상이 있었는지 피해 상황을 기록한 것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파멸을 자행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종교적으로 저질러지는 악행들입니다. 이유는 그것이 그들의 신을 위한 충성이라고 믿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습니다. 종교적이 아닌 살상으로 도덕적 가책이라도 느끼지만 종교와 신앙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도덕적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괴력은 가히 무제한입니다. 십자가군의 파괴 살상행위가 그랬지요. 것처럼 이들의 살상 파괴 행위도 정말 가공할 일입니다. 지금도 이들의 테러 행위가 가장 우려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무저갱에서 올라온 사자이고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기독교도 십자가군 때에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종교재판으로 죽인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들이 다 셋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예언된 사건에 포함된 것들입니다.

10. 말씀을 들으니 정말 화화화라고 선포할만한 것 같습니다. 정말 역사는 종교가 이끈 것 같습니다. 종교 없는 시대는 없었을 것이고, 종교와 신앙이 인류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많겠지만 부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무척 많겠습니다.

답: 그렇지요. 특히 종교가 정권을 잡으면 그 피해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교분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종교 국이지만 그 나라가 국민들을 종교의 이름으로 탄압한 기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방나라들을 정복한 것은 있지만, 이단으로 몰아서 죽이고 파괴한 사건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병병합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출애굽 때부터 행한 정복 전쟁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교리와 신조 때문에 살상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종교와 신앙을 올바르게 깨닫고 가지 않으면 인류에게 해가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고 강론하면서 이런 원리들을 잘 깨닫고 깊이 새겨서 우리의 믿음이 이웃과 사회와 국가에 진정한 축복이 되도록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11.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진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우리도 이웃과 사회와 국가에 복이 되는 신자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